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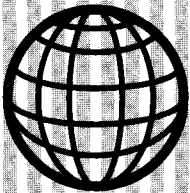
세 계

브라질 닭고기 수출 급신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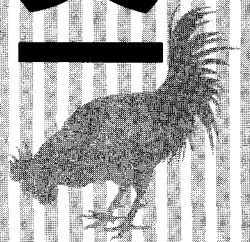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병과 FTA 협상 등으로 세계의 닭고기 시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주요국들의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54,654천톤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금년에는 수출입선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수출국으로 1, 4위를 자랑하던 미국(2,230천톤)과 태국(500천톤)의 수출이 AI의 영향으로 수출선이 막히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난해 2위의 수출실적을 보인 브라질(1,800천톤)이 FTA 등 국제무역선의 변화와 함께 수출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의 경우 2001년부터 점차적으로 수입이 줄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도 금년 수입량이 990천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내 AI발생 등으로 수입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지난해 수입실적을 보면 1,180천톤으로 가장 많고 중국(715천톤), 일본(700천톤), 유럽연합(420천톤), 사우디아라비아(390천톤) 순으로 나타났다.(PI)

20년간 AI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최근 20년 동안 AI가 전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양계 산업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 사건은 3차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1983/84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지역을 강타한 AI로 1,700만수의 가금이 도살처분되었고, 약 4,200억원(350백만불)어치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999/2000년 이탈리아에서는 AI발생으로 1,400만수의 닭이 살처분되었고, 약 2,500억원(200백만 유로)어치의 경제적 손실이 가해졌다. 또한 지난해 2003년에는 네덜란드에서 3천만수의 닭들이 살처분되었고 9,300억원(750 유로)어치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준 사건은 지금까지도 8,000만수 이상의 가금이 살처분되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AI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WP)



해외양계뉴스



일본

계란의 적정기한 표시 강화

일본의 후생성감찰안전과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일부가 상미기한(賞味期限)을 위반하고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어 계란의 적정기한을 표시할 것을 일본난업협회 등 채란관련단체에 통지하였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경의 한 채란생산업자가 냉장상태에서 6개월을 보관한 계란을 9일간의 상미기간을 표기해 유통시키면서 식품위생법에 1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들고, 계란의 적정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은 각종 매스컴을 타고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하였다. 상미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두고 설정하고 있으며, 살모넬라균이 증식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생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鷄鳴新聞)

우간다

양계산업 급신장

아프리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우간다가 경제적인 발전과 인구증가에 힘입어 양계산업의 발전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닭고기 생산량은 10-15%, 계란 생산량은 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03년의 경우에도 양계산업 전반적으로 3%의 성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발전은 주변국들(케냐, 르완다, 브루나이, 콩고 등)의 양계산물 요구량이 늘어나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병아리도 지난해 1백만수를 판매하는 등 주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PI)

네덜란드

바네벨드 대학 양계연수 과정 모집

네덜란드에서 가금, 말, 돼지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네벨드 대학(Barneveld College)이 금년 5, 6월에 양계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연수생을 모집중에 있다. 양계분야는 부화, 육계, 종계, 산란계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각 과정별 8명씩 구성되는데, 부화와 육계 과정은 5월 10~21일, 종계와 산란계 과정은 5월 24일~6월 4일로 각각 10일동안 이루어진다. 연수비는 총 2,700유로(약 337만원-운임, 숙박 포함)이며 관심있는 양계인 및 관련인은 네덜란드 대사관(02-723-4180) 또는 바네벨드 대학 연수부(www.ptcplus.com, e-into@ptcplus.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국

'VIV Asia 2005' 더 큰 규모로 개최

태국이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VIV축산박람회가 가금인플루엔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더 큰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인 NCC의 관계자인 Lada 이사는 다음해에 개최되는 'VIV Asia 2005'는 2003년도 보다 참가업체가 100여군데가 더 늘어난 500업체가 될 것이며, 참관인도 3만명보다 25%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5년 행사는 식품의 안전성, 동물의 위생, 건강도 다루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AP)